

## 葉天士의 內風說에 關한 小考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姜岱昊 · 高成奎 · 曹基湖 · 金永錫 · 裴亨燮 · 李京燮

### I. 緒論

風은 六氣중의 하나이며 人體에서 '風氣通於肝, 風木之氣, 風性主動'<sup>6,7)</sup> 등의 相關關係를 가지며, 病理的인 측면에서는 外感六淫으로서 致病因素가 되고, 運動이나 感覺 등의 障礙, 疼痛疾患, 皮膚疾患 등에 關係되는 매우 多様な 病症으로 表現되고 있어 이를 '風者百病之長也'라고 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四肢의 運動不調나 感覺障礙, 神識昏迷, 言語不利 등의 症狀를 惹起하는 中風에 對하여서는 內經이래 諸 醫家들이 서로 다른 學說을 主張하여 時代의 흐름에 따라 中風에 對한 名稱과 原因, 病理機轉, 分類, 治法, 治方 등이 多様하게 되었다<sup>1,8,18)</sup>.

<內經><sup>6,7)</sup>에 나오는 中風이란 用語는 外感風邪에 的中되었다는 意味이고, 後代에 말한 實際 中風의 原因과 症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表現되어 있다. 仲景<sup>19)</sup>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中風이란 用語를 使用하여 外邪風의 轉變概念을 說明하였는데, 이러한 影響으로 以後 宋代까지 中風을 外中風邪로 認識하였으며 이에 따라 立方處治하게 되었다. 金元代에 이르러 劉<sup>14)</sup>, 李<sup>15)</sup>, 朱<sup>21)</sup>三家의 學說이 나타나고서, 비로소 中風의 原因이 外來風邪가 아닌 內傷之病으로 그 原因이 '火', '濕痰', '虛'라는 認識이 이루어졌는데, 이와같은 인식은 前代의 中風理論과 顯著히 다르므로 當時의 醫家들이 이를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區分하기 시작하였다.<sup>15)</sup> 明代의

張景岳<sup>18)</sup>은 三家의 學說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批判受容하여 中風이 '內傷之裏證'이므로 '非風'이라 命名할 것을 主張하였다. 清代에 이르러 葉天士<sup>10)</sup>는 中風의 內因을 強調하였으며, 眞中과 類中の 區別을 明確히 하고자 類中の 病理機轉을 綜合하여 既存의 中風理論과는 다른 '內風'說을 主張하였다. 內風說은 內經의 理論과 五臟相生相剋의 病理概念으로 說明되었으며, 그 病理機轉은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肝陽偏亢 內風時起'이라 하여 中風을 肝의 病變에 歸屬시켰다. 이후의 中風에 對한 論議는 西醫學의 影響을 받아서 西醫學과 比較說明한 것이 많으며<sup>20)</sup>, 現在는 中風이 單純한 하나의 原因에 依하여 發하는 것이 아니라 葉天士의 內風說을 包含하여 外邪, 火, 濕痰, 虛, 內風 등의 複合的인 原因에 依하여 發하는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sup>1,2,8,11)</sup> 이에 本人은 內風의 定義, 原因, 病理機轉, 症狀, 治法 등을 알아보고자 諸般 文獻을 살펴본 바 內風說에 對한 多少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內經에 收錄된 肝風內動의 基本概念

<黃帝內經素問><sup>6)</sup>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乃能瀉

男子七八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精少 腎臟

衰形體皆極 (上古天真論)

風客陰氣 精氣乃亡 邪傷肝也 (生氣通天論)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風勝即動 風氣通於肝 玄生神 神在天爲風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志爲怒 怒傷肝

暴怒傷陰 暴喜傷陽

風勝即動 (陰陽應象大論)

肝者將軍之官

謀慮出焉 (靈蘭秘典論)

肝者罷極之本 魂之居也...此爲陽中之少陽 通於春氣 (六節藏象論)

循蒙招充 目冥耳聾 上虛下實 過在足少陽厥陰 甚即入肝 (五臟生成篇)

春脈太過即令人善忘 忽忽眩冒而顛疾

(玉機眞藏論)

風者百病之長也 善行而數變

風之傷人 多或爲寒熱 或爲寒中 或爲熱中 或爲厲風 或爲偏枯 或爲風也 其病各異 其名不同 或內至五臟六腑

以春甲乙 傷於風者爲肝風

肝風之狀 多汗惡風善悲 色微蒼 喙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入房汗出中風即爲內風

風中五臟六腑之俞亦爲臟腑之風各入其門戶所中即爲偏風 (風論)

肝病頭目眩 脇支滿 (標本病傳論)

其味酸 其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風傷肝

(五運行大論)

諸風掉眩皆屬於肝 諸暴強直皆屬於風 風氣大來 木之勝也 土濕受邪脾病生焉

(至眞要大論)

<黃帝內經靈樞><sup>7)</sup>

肝藏血血舍魂 肝悲哀動中即傷魂 魂傷即狂忘不精 不精即不正 (本神篇)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水穀氣血之海也...胃之所出氣者 經隧也 經隧者五臟六腑之大絡也. (玉版篇)

胃者五臟六腑之海也 水穀皆入於胃 五臟六腑

皆稟氣於胃 五味各注其所喜 (五味篇)

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暑清濕喜怒 風雨寒熱 不得虛邪 不能獨傷人也 卒然逢疾風暴雨 而不病者 皆無虛故不能獨傷人 (百病始生篇)

(考察)

肝風內動의 病因 病理를 把握하기 爲하여 內經<sup>6,7)</sup>에 收錄된 肝과 風과의 關係에 對하여 살펴보자.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風氣通於肝 ...玄生神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志爲怒 怒傷肝'이라는 구절에서 肝과 風, 木, 怒 등이 密接한 相關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肝과 風木과의 關係는, 肝이 風木의 旺盛한 運動, 發生之氣를 가지고 있어 全身의 運動, 發生之氣로서 氣血등의 全身 代謝 循環의 條達 舒暢을 主管하는 것이다. 天에 있어서의 風이란 作用만 있고 形體가 없는 것인데, 氣流을 일으켜 木의 發生之氣를 生하고 이 木氣가 곧 肝을 生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正常的인 風의 作用은 生命을 生하나 異常的인 風의 作用은 萬物을 死滅 破壞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內生하는 風도 作用에서는 역시 天에서의 風과 같은 것이다.<sup>2)</sup>

(素問·調經論)에 '血有餘即怒 不足即恐'이라 하였고, (靈樞·本神篇)에 '肝藏血 血舍魂'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肝과 血, 魂의 相關關係를 알 수 있다. 肝이 血을 藏하는 概念은 (素問·五臟生成篇)에 '人臥即血歸於肝'이라는 句節에서 보이듯이 睡眠時나 休息時에 血液의 需要量이 減少하기 때문에 남은 血液이 肝臟으로 돌아와 貯藏되고 活動時에는 血液의 需要量이 增加하기 때문에 肝臟에 貯藏되어 있던 血液이 排出되어 需要量을 供給해 줌으로써 血液循環에 對하여 調節作用을 發揮하는 것이다. 이렇게 血液循環의 調節이 잘되면 血舍魂의 機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魂의 輔弼神明하는 作用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져서 精

神活動이 圓滑히 이루어지지만, 反面 이러한 機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血의 有餘 不足으로 因하여 怒, 恐 등의 病理的인 情志變化가 나타나거나, 外界의 直接的인 刺戟으로 말미암아 肝의 正常的인 機能이 失調되어 肝氣鬱結 氣機不調 등의 病理變化가 나타나며, 이로 因하여 精神活動的인 面에 있어서 異常한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變化로 因하여 身體에 胸脇張滿 憂鬱 月經不調 또는 躁急易怒 失眠多夢 頭暈目眩 耳鳴耳聾 등의 症狀이 誘發된다. 이는 肝藏血의 機能이 順調롭지 못하여 情志變化를 惹起하는 一面과 外界의 刺戟으로 因하여 肝藏血의 機能에 不調를 惹起하는 相互的인 面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素問·至眞要大論)의 '諸風掉眩 皆屬於肝, 諸暴強直 皆屬於風'을 살펴보면 風은 陽邪이고 風勝即動하여 善行而數變하고 風氣通於肝한다. 掉는 搖이고 眩은 運으로 이는 木之化이므로 屬於肝이라 하였고, 暴은 卒이고 強直은 筋病發痙하여 不柔和하는 것이고 肝主筋하고 其化風이므로 屬風이라 하였다.

以上을 綜合하면 肝主藏血, 血能養筋, 怒即傷肝하므로 血의 不足이나 怒 등의 情志失調가 肝機能의 不調를 招來하여 여러가지 病理的인 現象을 일으킬 수 있고, 風性主動, 風氣通於肝하므로 이에 關係되는 諸症狀를 風과 聯關시킨 것이라 思料된다.

## 2. 葉天士以前의 內風의 概念에 對한 文獻考察

### 1) <聖濟總錄><sup>13)</sup>

#### 諸風門

風邪中人以春甲乙得之爲肝風.

人生自幼穉至於老耄 率多因風而致疾 或嗜食傷飽 或不食失飢 或渴而失飲 或飲而過量 或因五味之傷 或冒熱衝風 或大寒近火 或暴露寒濕 或刺損肌膚撲傷肢體 或失節宜 或多嗜慾 緣此風趨諸竅 或留一偏遂 使手足不遂 言語蹇澁 或

痛連骨髓 或痺襲皮膚瘙癢如蟲行 旁痺如錢石 或多痰好睡 或健忘多嘔 血脈不行肉色乾瘦 久在牀枕起便須人語澁面浮 精神困耗皆其證也.

內經謂邪風之疾如風雨 言邪之迅速如此 卒中風之人 由陰陽不調 臟腑大虛 氣血衰弱 榮衛之竭 故風之毒邪尤易乘間致 仆倒悶亂 語言蹇澁 痰涎壅塞 肢體攣痺 不識人事者此證也

內經謂以春甲乙中風爲肝風 肝風之狀多汗惡風 善悲 噙乾善怒 時憎女子者 有頭目瞶兩脇痛 行常僵僕 嗜甘如阻婦狀者 有但踞坐不得 低頭兩目連頰色微青 脣青 面黃者治法宜灸肝脛 後以藥治之.

攤緩之辨 攤即懈惰而不能收攝 緩即弛縱而不能制物 故其證四肢不舉 筋脈關節無力 不可收攝者謂之攤 其四肢雖能舉動而肢節緩弱憑物不能運用者謂之緩 或以左爲攤右爲緩即非也 但以左得之病在左 右得之病在右耳 推其所自皆由氣血內耗 肝腎經虛 陰陽偏廢而得之 或有始因他病服吐下之藥過度 亦使眞氣內動 榮衛失守 一身無所稟養而致然也.

臟眞散於肝 肝藏筋膜之氣 筋爲肝所養 筋得所養即俯仰屈伸 莫或乖戾 若經絡偏虛風邪乘虛客於機關即 筋脈縮急 干於陽絡即 肩背從而拘攣 此皆邪氣內盛 精氣不能榮養諸筋 故爲四肢拘攣 不能屈伸.

#### (考察)

<聖濟總錄>은 宋代에 內經以下 各家의 基本理論에 依據하여 쓰여진 書籍이다.

本書 첫머리의 諸風論은 中風을 各 症狀別로 說明하였는데, 肝風을 內經의 五臟中風論을 引用하여 말하였으며, 中風의 原因이 外感 內傷 飲食不節 등에 起因하여 陰陽不調로 臟腑가 大虛하고 氣血이 衰弱하여 榮衛가 竭하니 風邪가 侵入하여 中風이 發한다 하여 基本的으로 外感風邪說을 말하였지만, 特히 攤緩을 論함에 攤緩이 左右의 區分을 말한 것이 아니고 攤即 懈惰而不能收攝 緩即弛縱而不能制物이라 하여 症狀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하였으며, 그 原因이 氣血內耗하여 肝腎經虛하여 陰陽偏廢而得

之하거나 或은 他病에 吐下藥을 過服하여 眞氣內動하여 榮衛失調하고 一身을 稟養할 수 없게 되므로 發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中風四肢拘攣 不能屈伸의 病因病理은 肝이 筋膜之氣를 藏하고 있으므로 筋이 肝의 所養을 받아야 屈伸할 수 있는데, 만약 經絡이 偏虛하여 風邪가 虛를 乘하여 機關에 들어온 즉 筋脈이 縮急하고 陽絡에 干한즉 肩背가 拘攣하니 이는 邪氣가 內盛하고 精氣가 諸筋을 營養하지 못하여 四肢拘攣 不能屈伸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로서 中風의 發生에 肝腎經의 虛가 重要한 原因이 되며, 또한 肝主筋하므로 不能屈伸의 病理가 肝에 屬한다는 說明이 擡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本書에서 말한 氣血內耗 肝腎經虛, 또는 肝主筋 不能屈伸등의 概念은 以後에 葉天士가 主張한 肝風內動의 病理와 類似的한 點이 있는 것으로 葉天士의 內風說 以前에 이와 같은 概念이 中風發病 要因의 一部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2) <濟生方><sup>12)</sup>

中風論治

大抵人之有生 以元氣爲根 榮衛爲本 根氣強壯 榮衛和平 腠理緻密 外邪客氣焉能爲害? 或因喜怒 或因憂思 或因驚恐 或飲食不節 或勞役過傷 遂致眞氣先虛 榮衛失度 腠理空疏 邪氣乘虛而入. 及其感也 爲半身不遂 肌肉疼痛 爲痰涎壅塞 口眼喎斜 偏廢不仁 神智昏亂 爲舌強不語 頑痺不知 精神恍惚 驚惕恐怖 或自汗惡風 筋脈攣急 變證多端. 治療之法 當推其所自 若內因七情而得之者 法當調氣 不當治風 外因六淫而得之者 亦先當調氣 然後依所感六氣 隨證治之 此良法也. 但髮直吐沫 搖頭上穿 面赤如妝 或頭面青黑 汗綴如珠 眼閉口開 聲如鼾睡 遺尿不知人者 皆不可治.

肝風發即面青心悶 吐逆嘔沫 脇痛頭眩 不聞人聲 偏枯筋急 曲踞而臥, 心風發即面赤翕然而熱 悲傷噴怒 目張呼喚, 脾風發即 面黃身體不仁

不能行步 飲食失味 夢寐顛倒 與亡人相隨, 肺風發即面白咳逆 唾膿血 上氣奄然而極, 腎風發即面黑 手足不遂 腰痛難以俯仰 冷痺骨痛. 諸有此證 令人心驚 志意不定 恍惚多忘.

(考察)

嚴用和가 <濟生方>의 中風論治篇에서 이르기를 '무릇 人之生에 元氣와 榮衛가 根本이 된다. 根氣가 強壯하여 榮衛가 和平하면 腠理가 緻密하니 外邪가 어찌 해롭게 하리요' 하였다. 이는 外邪侵襲으로 因해 中風이 發한다는 것이지만, 中風의 原因을 內因七情과 外因六淫으로 나누어 說明하였으니 점차적으로 內因이 重要하게 認識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排風湯條文에 肝風, 心風, 脾風, 肺風, 腎風의 五臟中風을 羅列하고 各各의 症狀을 說明하였는데, 五臟中風은 內經에서부터 있었지만, 本書에서는 그 症狀을 內經과는 다르게 表現하였다. 이는 內經에서 五臟中風을 外感風邪로 認識한 反面 後代에 이르러서 中風을 五臟으로 歸類시키는 過程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嚴用和가 말한 五臟風의 症狀에서 비로소 中風의 증상이 포함되어 나타나고, 肝風을 中風의 하나로서 把握하였으니, 이는 以後 葉天士의 內風說에서 나타난, 肝風內動이라는 概念을 確立하는데 一定한 影響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3. 葉天士의 內風說

<臨證指南醫案><sup>10)</sup>

(中風)

內風乃身中陽氣之變動

陽挾內風上巔 目眩耳鳴不寐 肝經主病

經云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故肝爲風木之臟 因有相火內寄 體陰用陽 其性剛 主動主升 全賴腎水以涵之 血液以潤之 肺金清肅下降之令以平之 中宮敦阜之土氣以培之 即剛勁之質 得爲柔和之體 遂其條達暢茂之性 何病之有. 倘精液有虧 肝陰不足 血燥生熱 熱即風陽上升 竅絡阻塞 頭目不清 眩暈跌仆 甚即癱瘓厥矣.

風爲百病之長 故醫書咸以中風列於首門 其論症 卽有眞中類中 中經絡血脈臟腑之分 企論治 卽有攻風劫痰 養血潤燥 補氣培元之治 蓋眞中雖風從外來 亦由內虛 而邪得以乘虛而入 北方風氣剛勁 南方風氣柔和 故眞中之病 南少北多 其眞中之方 前人已大備 不必贅論 其類中之症 卽河間立論云 因煩勞卽五志過極 動火而卒中 皆因熱甚生火 東垣立論 元氣不足 卽邪湊之 令人殭仆 卒倒如風狀 是因乎氣虛 而丹溪卽又云 東南氣溫多濕 由濕生痰 痰生熱 熱生風 故主乎濕 三者皆辨明類中之由也 類者僞也 近代以來 醫者不分眞僞 每用羌防星半烏附細辛 以祛風豁痰 虛症實治 不啻如柄鑿之殊矣 今葉氏發明內風 乃身中陽氣之變動 肝爲風臟 因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

徐評 凡風淫所勝之病 自內經以及唐宋名家 皆以辛涼甘寒爲本 而佐以驅風益血之藥...乃近日諸醫遇中風之症 總以人蔘附桂爲開手第一方 輕者不起 重者立斃 問所從來 曰本之葉先生 余始亦信其說果從葉氏出 及閱此書 乃知此翁學有淵源 心思靈變 與前人所論分毫不肯 其人蔘亦於病勢已退後 用以培元養氣 當病甚時 必於驅風之藥同用...肝風卽中風一類 南方最多 卻不必另立一門

1) 病因, 病機

① 血虛

血虛不榮筋 內風襲絡  
 肝腎血液內枯 陽擾風旋乘竅  
 肝腎精血殘廢 虛風動絡  
 失血有年 陰氣久傷 復遭憂悲悵鬱 陽挾內風 大冒 血舍自空 氣乘於左

② 肝腎虛

厥症脈虛數 病在左軀 腎虛液少 肝風內動 爲病偏枯  
 水虧風動  
 未老欲衰 腎陰弱 收納無權 肝陽熾 虛風蒙竅 乃上實下虛之象  
 液燥下虧 陽挾內風上引 陰不上承

下元水虧 風木內震 肝腎虛 多驚恐  
 陰虛液耗 風動陽升  
 營液內耗 肝陽內風震動  
 少陰腎臟陰陽不續 厥陰肝風突起 以致精神昏迷 臟陰之虧 營液之耗 上年夏秋病傷 更因冬暖 失藏 入春地氣升 肝木風動

③ 怒傷肝 肝氣犯胃

怒動肝風  
 驚恐惱怒動肝 內風陽氣沸騰 皆風木過動 致陽明脈衰  
 噴怒動陽 恰值春木司升 厥陰內風 乘陽明脈絡之虛  
 因縈思擾動 五志之陽 陽化內風 變幻不已 夫陽動莫制 皆臟陰少藏

④ 勞傷精

操持經營 神耗精損 遂令陰不上朝 內風動  
 操持積勞 陽升內風旋動 燦筋損液  
 用力努掙 精從溺管瀝出 經兩耳失聰 腎竅失司 凡腎液虛耗 肝風鴟張  
 寡居一十四載 獨陰無陽 平昔操持 有勞無逸 當夏四月 陽氣大泄 主令 意傷憂愁 卽肢廢也

⑤ 年老而虛風動

中年後 精血內虛 虛風自動 乃陰中之陽損傷 大寒土旺節候 中年勞倦 陽氣不藏 內風動越 令人麻痺  
 入春口眼喎斜 乃虛風動 老年力衰 當時令之發泄  
 緣高年陽明脈虛 加以愁煩 卽 厥陰風動 木橫土衰  
 老年 隆冬暴中 內陰陽失交 本病 內風掀越 中陽已虛  
 有年形盛氣衰 冬春之交 眞炁不相維續 內風日熾

高年水虧 肝陽升逆無制

有年下虧 木少水涵 相火內風旋轉 薰灼胃脘

⑥ 陽明脈絡虛

陽明虛 內風動  
 陽明脈絡空虛 內風暗動

陽明脈絡已空 厥陰陽氣易逆 風勝即腫 熱久為燥 面熱.....無非陽化內風

陽明脈衰 厥陰內風暗旋不熄 遂致胃脈不主束筋骨 以利機關 肝陽直上巔頂 胃虛肝風內動

### ⑦ 熱盛動風

年未四旬 肌肉充盈 中病二年 猶然舌強言蹇 舌厚邊紫而納食便溺仍好 乃心包絡間 久積之熱 瀰漫 以致機竅不靈 平昔酒肉助熱 動風為病

陽邪襲經絡而為偏痺 血中必熱 艾灸反助絡熱 病劇

心中熱熾 難以鳴狀 此陽明脈中空乏而 厥陰之陽 挾內風以糾擾 真氣不主藏聚 虛假之熱上泛

下虛上實 君相火亢 水涸液虧 多有暴怒跌仆之虞

久熱動風 津液日損

心火上亢 皆為營液內耗

溫邪深入營絡 熱止 膝骨痛甚 蓋血液傷極 內風欲沸

心熱煩躁 因驚而後 肝風內動 變極厥之象

### ⑧ 時令不調

大寒節 真氣少藏 內風旋動

今年風木司天 春夏陽升之候 兼因平昔怒勞憂思 以致五志氣火交併於上 肝膽內風 鼓動盤旋 上盛即下虛 故足膝無力 肝木內風壯火 乘襲胃土

近交秋令 燥氣加臨 先傷於上 是為肺燥之咳 然下焦久虛 下虛陰火泛越

夏熱秋燥 陽津陰液更傷 口齒咽喉受病 都屬陰火上乘 氣熱失降使然

今春三月 陽氣正升 肝木主乎氣候 肝為風臟 風亦屬陽 卦變為巽 兩陽相合 其勢方張 內風挾陽動旋

今年天氣大熱已久 熱即真氣泄越 虛即內風再旋 經言痿生大熱 熱耗津液..... 風陽升於上也

今年天符歲會 上半年陽氣大泄 見病都屬肝胃 以厥陰為風臟而陽明為盛陽耳 陰陽不肯相依 勢必暴來厥中 過大暑可免 以暑濕大熱 更多開泄 致元氣不為相接耳 然此本虛標實 氣火升騰所致 交節病變 總是虛證

## 2) 症狀

### ① 內風

口喎 舌強言蹇 舌瘖不言 多言似少相續 四肢或偏身麻木 偏枯 偏辨 肢萎 神憊欲寐 心悸 頭暈目眩 跌仆 耳鳴 呵欠 二便不通 甚即昏厥 神昏不醒

### ② 肝風

頭暈 目眩 耳鳴 心悸 心煩不寐 驚怖多恐 口喎舌強 呵欠 咽喉阻物 脇熱胸痞隱痛 周身皆痛 洩淋便澀

## 3) 治法, 治方

### ① 內風

\* 大忌風藥寒涼 泄氣降痰 發散攻風 再劫真陰 非其所宜.

\* 通治法; 肝陽偏亢 內風時起 治以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虎潛丸, 固本丸, 復脈湯之類.

\* 若陰陽并損 無陰即陽無以化 故以溫柔濡潤之通補-地黃飲子, 環少丹之類.

\* 更有風木過動 中土受戕 不能禦其所勝 如不寐不食 衛疎汗泄 飲食變痰-六君子湯, 玉屏風散, 茯苓飲, 酸棗仁湯之屬.

\* 風陽上僭 痰火阻竅 神識不清, 宜芳香宣竅 或辛涼清上痰火-至寶丹之類.

\* 身體緩縱不收 耳聾目昏 口開眼合 手散遺尿 失音聃聃 此本實先撥 陰陽樞紐不交 與暴脫無異 并非外中之風 乃純虛症也-急用參附大劑以回陽 恐純剛難受 必佐陰藥以挽回萬一.

\* 若肢體拘攣 半身不遂 口眼喎斜 舌強言蹇 二便不爽 此本體先虛 風陽挾痰火壅塞 以致營衛脈絡失和 治法急即先用開關 繼即益氣養血 佐以消痰清火 宣通經絡之藥.

\* 氣血充盈 脈絡通利 即病可全愈.

### ② 肝風

\* 通治法; 緩肝之急以熄風 滋腎之液以驅熱-虎潛, 侯氏黑散, 地黃飲子, 滋腎丸, 復脈等方加減.

\* 清營中之熱佐以斂攝神志-酸棗仁湯, 補心丹, 枕中丹加減.

\* 泄肝安胃 或填補陽明-二陳, 龍蓄之類.

(肝火)

肝者將軍之官 相火內寄 得眞水以涵濡 眞氣以制伏 木火遂生生之機 本無是症之名也. 蓋因情志不舒卽生鬱 言語不投卽生嘔 謀慮過度卽自竭 斯罷極之本 從中變火 攻衝激烈 升之不熄爲風陽 抑而不透爲鬱氣 脘脇脹悶 眩暈 猝厥 嘔逆 淋閉 狂躁 見紅等症 由是來矣. 古人雖分肝風 肝氣 肝火之殊 其實是同一源. 若過鬱者 宜辛宜涼 乘勢達之爲妥 過升者 宜柔宜降 緩其旋擾爲先 自竭者 全屬乎虛 當培其子母之臟. 至於犯上 侮中 乘下諸累 散見各門可考.

(考察)

葉天士는 <臨證指南醫案>에서 中風의 原因을 內風이라 記述하면서 ‘內風乃身中陽氣之變動’이라는 말로 內風을 定義하였는데, 이는 人體의 陽氣가 陰血의 滋養을 받지 못하여 過亢된 狀態로 볼 수 있다. 그는 目眩, 耳鳴, 不寐를 肝經의 主病이라 하고, 이는 肝陽이 陽明脈絡之虛를 乘하여 쉽게 巔頂에 到達하여 發하는 症狀이라고 說明하였다. 肝에 對하여 論함에 肝은 風木之臟이고, 相火가 內寄하므로 體陰用陽의 臟이 되며 그 性이 剛하고 主升主動한다. 五臟의 相生相剋 理論에 따라 肝을 說明하면, 水生木의 機轉으로 오로지 腎水에 의해서 涵養되고, 血液에 의해서 濡潤되며, 金克木의 機轉에 따라 肺金清肅下降之令에 의해서 平하게 되며, 後天之本인 中央脾土에 의해서 培養되어 肝의 條達暢茂之性의 機能이 잘 發揮되면 病이 없을 것이라 하고, 萬若 여러가지 原因으로 因하여 精液의 虧虛나 肝陰의 不足을 招來하여 血이 燥하게 되면 熱을 생하고, 이 熱이 風陽을 上昇시켜 諸竅와 脈絡을 阻塞하므로 頭目不清하여 眩暈, 跌仆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內風의 病理의 機轉을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라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肝은 風木之臟으로 腎水의 涵養과 血液의 濡養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要因으로

因하여 精液의 虧虛나 血의 不足을 惹起하여 이에 따라 肝의 濡養失調로 肝陰이 不足해지므로 陽熱亢盛이나 陰虛不能制陽을 發한다. 이러한 陽升無制 亢逆而動으로 動搖抽搐 振顫등의 肝風症狀이 나타나고 더욱 甚하게 되어 肝風內動의 症狀를 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는 前人이 記述한 眞中風에 對하여 眞中之症이 비록 外邪로 因하여 發하지만 역시 人體가 內虛함에 말미암아 邪氣가 들어온다고 하여 內因을 重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劉李朱三家의 學說이 類中之 原因을 明確히 밝힌 것이라 하고, 단지 後人이 眞, 類를 區分하지 못하여 類中風에 祛風劑痰之劑를 使用하니 이는 虛證을 實治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이로서 葉天士는 前代의 外邪風說과 主火說, 主氣說, 主濕痰說등을 받아들인 가운데 中風의 原因으로 內風說을 主張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本書에서는 各 個人마다 病因, 病理와 治法, 治方을 具體적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이를 原因別로 整理해보면 血虛, 肝腎虛, 情志失調傷肝, 過勞傷精, 年老, 陽明脈絡虛, 熱盛, 時令不調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內因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특히 時令不調에서는 人體에 미치는 五運六氣의 影響과 正氣虛卽邪氣入의 病因, 病理를 說明함으로 中風의 發病에 미치는 天時氣候등 外因의 影響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後世의 醫家들은 內風을 더욱 체계화하여 肝陽化風, 血虛生風, 熱極生風, 陰虛風動<sup>2,3)</sup>등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는 肝風과 中風을 區分하였는데, 각각의 症狀를 살펴보면 中風에서는 口喎 舌強言蹇 四肢或偏身麻木 二便不通 頭暈目眩 昏厥 神志不清등이 나타난다고 하고, 肝風에서는 頭暈目眩 耳鳴 心悸 心煩不寐 脇熱胸痛 驚怖多恐등의 症狀를 말하였다. 이는 肝風이 中風이 發하기 直前의 段階로서 肝風이 內動하면 비로소 內風이 되어 中風의 症狀를 發하게 되므로 肝風의 症狀는 內風의 症狀보다 比較적 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徐靈胎는 이를 評하여, 肝風이란 中風의 한가지로 南方에 많으니 이를 따로 分類할 必要가 없다고 하였다.

治法에 있어서 寒涼한 風藥으로 泄氣降痰시키면 眞氣가 損傷되므로 이를 大忌하라 하였으며,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으로 通治法을 삼고 具體的인 病理機轉에 따라 以溫柔濡潤之通補, 補土抑肝, 芳香宣竅兼清上痰火등의 法을 用하라 하였다. 특히 病勢가 純虛症일때 人蔘, 附子를 大量으로 用하고 陰藥으로 佐하라 하였는데, 徐靈胎는 이를 評하여, 後世의 醫家들이 이를 따라 中風之症을 治함에 제일 먼저 人蔘, 桂附를 使用하여 病人을 危殆롭게 하니 이는 葉天士의 本 뜻이 아니라고 批判하였다. 또 症狀에 따라 急할때에는 먼저 開關하고 繼續하여 益氣養血 하고 아울러 消痰清火宣通經絡之藥으로 佐하여서 氣血이 充盈하고 脈絡이 通한즉 病이 나올 것이라 하였다. 肝風의 治法은 緩肝滋腎을 通治法으로 하고 症狀에 따라 清熱兼斂攝神志하거나 泄肝安胃或填補陽明의 法을 用하였는데, 이는 內風으로 因한 中風의 治法과 類似한 것이라 생각된다.

葉天士는 (肝火)의 項目을 따로 提示하면서, 肝이 相火의 寄所가 되며 眞水 眞氣에 依해 涵濡制伏을 받고 木生火의 機轉으로 肝火가 發한다고 하였다. 卽 情志失調나 謀慮過度로 罷極之本이 이를 따라 火로 變하며 肝火가 激烈히 上升하여 不熄한 卽 風陽이 된다고 하여, 古人이 비록 肝風, 肝氣, 肝火를 서로 다르게 나누었지만 根源은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葉天士는 이 세가지를 同一한 概念으로 把握하고서 그의 內風說을 展開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附.<醫宗必讀.乙癸同源論><sup>16)</sup>

古稱“乙癸同源 腎肝同治”其說維何. 蓋火分君相 君火者居乎上而主靜, 相火者處乎下而主動. 君火惟一 心主是也, 相火有二 乃腎與肝, 腎應北方壬癸 于卦爲坎 于象爲龍 龍潛海底 龍起

而火隨之. 肝應東方甲乙 于卦爲震 于象如雷 雷藏澤中 雷起而火隨之 澤也 海也 莫非水也 莫非下也. 故曰“乙癸同源”. 東方之木無虛 不可補 補腎卽所以補肝, 北方之水無實 不可瀉 瀉肝卽所以瀉腎. 至乎春升 龍不現卽雷無聲 及其秋降 雷未收卽龍不藏, 但使龍歸海底 必無迅發之雷 但使雷藏澤中 必無飛騰之龍. 故曰“腎肝同治”.

余于是而申其說焉. 東方者 天地之春也 勾萌甲坼 氣滿乾坤. 在人爲怒 怒卽氣上 而居七情之升 在天爲風 風卽氣鼓 而爲百病之長. 怒而補之 將逆而有壅絕之憂 風而補之 將滿而有脹悶之患矣. 北方者 天地之冬也 草黃木落 六宇肅條. 在人爲恐 恐卽氣下 而居七情之降 在天爲寒 寒卽氣慘 而爲萬象之衰. 恐而瀉之 將怯而有顛狂之虞 寒而瀉之 將空而有涸竭之害矣. 然木既無實 又言補肝者 肝氣不可犯 肝血自當養也. 血不足者濡之 水之屬也. 壯水之源 木賴以榮. 水既無實 又言瀉腎者 腎陰不可虧 而腎氣不可亢也. 氣有餘者伐之 木之屬也. 伐木之干 水賴以安. 夫一補一瀉 氣血攸分 卽瀉卽補 水木同府. 總之相火易上 身中所苦. 瀉水所以降氣 補水所以制火 氣卽火 火卽氣 同物而異名也. 故知“氣有餘便是火”者, 愈知“乙癸同源”之說矣.

(考察)

內風說에 나타나는 水不涵木의 病理機轉의 理解를 돕기위해 水와 木, 肝과 腎의 關係를 李仲粹의 <醫宗必讀.乙癸同源論>에서 살펴보았다. 火의 種類에는 君火 相火가 있는데 君火는 心火이고 相火는 腎과 肝의 火이다. 腎은 北方壬癸에 應하고 坎卦이며 龍에 象하였다. 肝은 東方甲乙에 應하고 震卦이며 雷에 象하였다. 龍이 起하면 火가 일어나며 雷가 起하여도 火가 일어난다. 龍은 海底에 潛하고 雷는 澤中에 藏하는데 海와 澤이 모두 水, 下이다. 이런 故로 “乙癸同源”이라 하였다. 治法을 論함에 木無虛不可補이므로 補腎하는 所以로 補肝하는 것이고, 水無實不可瀉이므로 瀉肝하는 所以로 瀉腎하는 것이다. 이는 봄의 上升之節



에 龍이 不現한즉 雷無聲하고, 가을의 下降之節에 雷未收한즉 龍不藏하니 단, 龍이 海底에 歸하여야 迅發之雷가 없으며, 雷가 澤中에 藏하역약-飛騰之龍의-없으니-이를-腎肝同治라-하였다. 이를 다시 說明하면, 木之志는 怒가 되고 怒即氣上하여 七情之升을 主한다. 木之性은 風이 되고 風即氣鼓하여 百病之長이 된다. 만약 怒를 더한즉 上逆하여 壅絕之憂가 있게 되며, 風을 더한즉 장차 滿하여 脹悶之患이 있게 된다. 水之志는 恐이 되고 恐即氣下하여 七情之降을 主한다. 水之性은 寒이 되며 寒即氣慘하여 萬象之衰가 된다. 만약 恐而瀉之 하면 장차 怯하여 顛狂之虞가 있게 되며, 寒而瀉之 하면 장차 空하여 涸竭之害가 있게 된다. 이를 治療함에, 木無虛하므로 補肝을 말할때 肝氣를 犯하는 것은 不可하니 마땅히 肝血을 養할 것이다. 血의 不足을 濡하는 것은 水之屬이므로 壯水之源하면 木이 이에 依支하여 榮하게 된다. 水無實하므로 瀉腎을 말할때 腎陰을 虧하거나 腎氣를 亢하는 것은 不可하니 마땅히 木之屬을 伐한즉 水가 이에 依支하여 便安할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一補一瀉하여 氣血을 나누니 水와 木이 同府가 된다. 總括하여 相火易上하여 身中所苦하게 되니 瀉水하여 降氣하고, 補水하여 制火하니 氣即火이고 火即氣이다. 이에 따라 “氣有餘便是火”나 “乙癸同源”之說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4. 葉天士以後의 內風에 對한 文獻考察

##### 1) <類證治裁><sup>17)</sup>

(中風)

風爲百病之長 故六淫先之 以其善行數變, 受之者 輕爲感冒 重即爲傷 最重即爲中, 然有眞中類中 中血脈經絡腑臟之辨. 西北高寒風勁 眞氣虛者 猝爲所中 是名眞中 經所謂風中六腑五臟之俞也. 東南卑濕醱熱 眞陰虧者 風自內生 虛陽上冒 亦致昏仆 是爲類中 實與外風無涉 經所謂陽之氣以天地之疾風名之也. 夫以地分眞類 謂眞中者西北爲劇 類中者東南爲多 未可膠柱以談也.

善乎石頑張氏之說曰 嘗診西北中風者 驗其瘡痍遺尿 詎非下元之態 當從事地黃三生等飲乎 喎僻不遂 詎非血脈之廢 當從事建中十全等湯乎. 東南類中 豈無六經形症見於外-便溺阻隔見於內 當從事續命三化等湯乎. 是真通論矣.

口眼喎僻, 因血液衰涸 不能榮潤筋脈.

瘳癱, 因肝經風火搏於經絡 即手足抽搦 或伸或縮而動不止, 由虛不能榮筋而燥氣乘之, 宜滋肝腎 灌輸筋脈 使水旺火熄 即風木自平.

猝倒無知, 凡類中病出於臟 精去即氣去 所以眩暈猝倒 氣去即神去 所以昏愈無知 陰陽脫離 精氣不交 須參附大劑 峻補其陽 繼以地黃丸加杞子 當歸 或十補丸 填補眞陰 若心火盛 腎水衰 致猝倒神昏 肢掣口喎 宜峻補其陰 以滋化源.

遺尿, 係腎氣虛極 保元陽之脫 火虛者地黃飲子 水虛者六味丸.

眩暈, 凡虛陽上巔 得痰升即眩暈 經所謂上虛即眩也.

眞中風雖風從外中 亦由內虛召風 其攀急偏枯口喎舌強 二便不爽 由風挾痰火壅塞 致營衛脈絡失和....類中風本非外風 猝仆昏厥 無喎斜偏廢等症 是宜辨也 故葉氏謂內風乃身中陽氣變化. 肝爲風臟 因血液衰耗 水不涵木 肝陽偏亢 內風時起 宜滋液熄風濡養經絡 補陰潛陽.... 風木過動 中土受戕 致不寐不食 衛疏汗泄 飲食變痰.... 風陽上升 痰火阻竅 神識不清 芳香宣竅 或辛涼之品 清上痰火...若陰陽失交 眞氣欲絕 急回陽佐以攝陰 此其治也.

##### (考察)

<類證治裁>는 靑代 林珮琴의 所著로서 本人의 治療經驗中 重要한 醫案과 그에 따른 醫論을 적은 것이다. 本書의 中風理論도 역시 眞中과 類中之說을 따랐는데, 發病의 所因에 ‘眞陰虧者 風自內生 虛陽上冒’라 하여 內因을 重視하였고, 眞中에도 下元之態症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地黃飲이나 三生飲을 用하고, 類中에도 六經之形症이나 便溺阻隔症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續命湯이나 三化湯을 用할 수 있다

고 하여 中風을 治療함에 名稱에 얼메이지 알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口眼喎斜, 癱瘓, 猝倒 無知, 遺尿, 眩暈 등의 症狀을 설명함에 血虛不能養筋, 正氣虛, 腎氣虛, 또는 肝經風次上升 虛陽上升 등의 病理機轉을 말하였는데 이는 葉天士가 말한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養 등의 病理的機轉을 거쳐 肝風內動을 發하는 것과 類似하다고 생각된다.

眞中風을 설명함에도 風이 비록 外邪이지만 內虛한 까닭으로 일어나므로 처음에는 通關하고 이어 養血順氣佐以消痰清火하라 하였다, 이는 葉天士의 眞中風理論과 類似한 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볼때 葉天士의 內風理論은 이후의 中風原因說에 많은 影響을 끼쳐서 後代의 諸醫家들이 中風을 論함에 內風의 病理機轉을 받아들여 그 原因을 說明하는 면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附.(肝氣肝火肝風病機)

凡上升之氣 自肝而出. 肝木性升散 不受遏鬱 鬱即經氣逆 爲噎 爲脹 爲嘔吐 爲暴怒脇痛 爲胸滿不食 爲飧泄 爲癩疔 皆肝氣橫決也. 且相火附木 木鬱即化火 爲吞酸脇痛 爲狂 爲痿 爲厥 爲痞 爲呃噎 爲失血 皆肝火沖激也. 風依于木 木鬱即化風 爲眩 爲暈 爲舌麻 爲耳鳴 爲瘞 爲痺 爲類中 皆肝風震動也. 故諸病多自肝來 以其犯中宮之土 剛性難馴 挾風火之威 頂巔易到 藥不可以剛燥投也. 經曰 肝苦急急食甘以緩之 肝欲散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古聖治肝法盡于此. 夫肝主藏血 血燥即肝急. 凡肝陰不足 必得腎水以滋之 血液以濡之 味取甘涼 或主辛潤 務遂其條暢之性 即鬱者舒矣. 凡肝陽有餘 必需介屬以潛之 柔靜以攝之 味取酸收 或佐酸降 務清其營絡之熱 即升者伏矣.....大抵 肝爲剛臟 職司疏泄 用藥不宜剛而宜柔 不宜伐而宜和 正仿<內經>治肝之旨也.

(考察)

林珮琴은 모든 上升之氣가 肝으로부터 出하

는데, 肝氣가 鬱하여 橫決하면 經氣가 逆하여 噎 脹 嘔吐 暴怒脇痛 胸滿不食 飧泄 癩疔 등의 症狀을 發하고, 肝에 寄하는 相火가 沖激하여 吞酸脇痛 狂 痿 厥 痞 呃噎 失血 등의 症狀을 發하고, 또한 肝風이 動하여 眩暈 舌麻 耳鳴 瘞 痺 類中 등의 症狀이 發한다고 하여 肝氣, 肝火, 肝風을 各各의 症狀을 羅列하여 說明하였으며, 이러한 要因으로 因하여 肝에서 오는 病이 많음을 말하고 肝의 性이 剛하여 制御하기 어려우니 治法에 內經의 甘以緩之 用辛補之 酸瀉之의 法을 用하였다. 肝의 病機에 對하여, 肝藏血하므로 血燥即肝急한다. 무릇 肝陰이 不足하면 반드시 腎水로서 滋하고 血液으로서 濡하며 甘涼之味나 辛潤之劑를 用하여 條暢之性이 잘 이루어지면 鬱한 것이 舒한다. 肝陽이 有餘한즉 반드시 덮어서 沈潛해야 하며 酸收 酸降之味를 用하여 營絡之熱을 清한즉 升한것이 伏한다고 하였다. 이로서 林珮琴의 肝에 對한 概念을 알 수 있으며 肝風과의 關係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醫學衷中參西錄><sup>20)</sup>

中風之證 多因五內大虛 或秉賦素虛 或勞力勞神過度 風自經絡襲入 直透膜原而達臟腑 令臟腑各失其職. 或猝然昏倒 或言語蹇澁 或溲便不利 或溲便不覺 或兼肢體痿廢偏枯 此乃至險之證. 中之輕者 猶可遲延歲月 中之重者 治不如法 危在翹足間也..... 風名內中 言風自內生 非風自外來也. <內經>謂“諸風掉眩 皆屬於肝”. 蓋肝爲木臟 木火熾盛 亦自有風. 此因肝木失和風自肝起. 又加以肺氣不降 腎氣不攝 衝氣胃氣又復上逆 于斯 臟腑之氣化皆上升太過 而血之上注於腦者 亦因之太過 致充塞其血管而累及神經. 其甚者 致令神經失其所司 至昏厥不省人事. 西醫名爲腦充血證 誠由剖解實驗而得也.....內中風之證 曾見於<內經>. 而<內經>初不名爲內中風 亦不名爲腦充血 而實名之爲煎厥 大厥 薄厥. 今試譯<內經>之文以明之. <內經>脈解篇曰“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名曰煎厥”. 蓋肝爲將

軍之官 不治即易怒 因怒生熱 煎耗肝血 遂致肝中所寄之相火 掀然暴發 挾氣血而上沖腦部 以致昏厥。此非因肝風內動 而遂為內中風之由來乎.....<內經>生氣通天論曰“陽氣者大怒即形絕 血鬱於上 使人薄厥”。觀此經文 不待詮解 即知其為肝風內動 以致腦充血也。其曰薄厥者 言其腦中所鬱之血 激薄其腦部 以至於昏厥也.....多先有中風基礎 伏藏於內 後因外感而激發 是以從前醫家 統名為中風。不知內風之動 雖由於外感之激發 然非激發於外感之風 實激發於外感之因風生熱 內外兩熱相并 遂致內風暴動.....蓋腦充血證之起點 多由於肝氣肝火妄動。肝屬木能生風 名之為內中風 亦頗近理。

#### (考察)

本書는 張錫純의 所著로 著者의 臨床經驗과 西醫理論을 綜合하여 쓰여졌다. 本書에서 是는 中風이 內虛로 因하여 風邪가 膜原을 뚫고 臟腑에 到達하여 臟腑가 機能을 다하지 못하여 發한다고 하였으며, 症狀에 따라 病의 輕重을 나누었다. 그리고 內中이라는 것은 內로 부터 生한 風이지 外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 하여, 內經의 理論을 따라서 肝木이 失和하여 서 風이 自起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肺氣 不降, 腎不納氣, 衝氣나 胃氣의 上逆등으로 臟腑의 氣化가 過度히 上昇하여 血이 腦로 上湊하여 血管이나 神經을 막으므로 甚하면 昏厥, 不省人事한다고 하고 이는 西醫의 腦充血에 該當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肝의 機能 失調는 怒로 因하여 熱을 生하고 이 熱이 肝血을 耗傷하여 肝中에 寄하는 相火가 掀然히 暴發하여 氣血을 끼고 上逆하는 것이라 하여 肝風內動으로 中風의 由來를 말하고 이는 <內經>의 ‘薄厥’, ‘大厥’, ‘煎厥’ 등의 症狀이라 하였다. 또한 外因을 論하여 비록 中風이 外因에 依하여 激發되지만 風自體로 因한 것이 아니고 風으로 因한 熱에 依해서 激發된다고 하여 風生熱의 理論을 따랐다. 그리고 腦充血의 起點이 肝火, 肝氣의 妄動이라 하고 肝木이 能

히 中風을 生한다고 하여 肝風內動의 病理機轉으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보건데 靑代 以後 에는 葉天士의 肝風內動說이 中風의 複合의 原因中의 하나로 認識되어 中風의 發病機轉을 이로서 說明한 面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3) <中醫內科學><sup>8)</sup>

##### (中風)

中風是以突然口眼喎斜 語言不利 半身不遂 甚至昏仆不省人事為特征的一類疾病, 絕大多數是由肝風內動所致 屬於內風。

##### 病因病理

中風의 病因 在唐宋之前以“內虛邪中”立論 認為是眞氣不足 脈絡空虛 然後風邪乘虛侵襲所致. 唐宋以後 許多醫家對外風侵入的理論提出了異義. 劉河間認為是“心火暴盛”, 李東垣提出“精氣自虛”的見解, 朱丹溪即主張是“濕熱生痰”所引起. 張景岳支持上述見解 更主張本病改名“非風”, 也可叫“類風”或“屬風”. 葉天士進一步闡明本病的發生是由于“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 明確提出本病屬於內風. 對於唐宋前, 後對本病病因病理的認識有如此顯著的不同 王安道提出了這樣的見解: 劉河間, 李東垣, 朱丹溪等所述的中風 不是外風入中引起的, 是“類中風”, 而劉氏等以前所述的中風, 是外風入中引起的, 是“眞中風”. 這種見解顯然是錯誤的. 實際上 不宜唐宋以前或以後所述的中風, 大多數是由精虛, 肝風內動等內在因素引起的, 與外風有關者, 只占少數. 唐宋以前 由于歷史條件的制限 對本病的認識是片面的 而唐宋以後 逐步有了更深入的認識, 提出了新的 更合乎客觀實際的見解. 這些演變 正反映了祖國醫學在實踐中不斷發展的過程.

概括起來 本病的形成 主要有三方面的因素.

- 一, 將息失宜 五志過極 七情所傷以及自然衰退等因素 使人體陰陽失調 特別是肝腎之陰不足 心火肝陽偏亢 最後形成肝風暴張 發為本病.
- 二, 飲食不節 勞倦內傷 脾失健運 聚濕生痰 痰

鬱化熱 濕痰(或痰熱)與肝風上逆 蒙閉清竅 流走經絡而發病.

三, 少數病人 也可因脈絡空虛 風邪侵入所致. 或原系陰虛陽亢 痰濕素盛之體 加之外感風寒 外邪引動內邪而發病.

辨證施治

中風屬于本虛標實之症. 在標, 爲風火痰濕壅盛: 在本, 卽屬肝腎不足 氣血衰少. 但病情有深淺輕重之不同 本虛標實有先後緩急的差別 辨證施治的必須加以注意. 臨床上常將中風分爲中經絡和中臟腑兩大類, 中經絡者一般無神志改變而病輕, 中臟腑者常有神志不清而病重.

(考察)

現代의 中醫學에서는 中風의 概念이 어떻게 整理되고 있는지 <中醫 內科學>과 <中風證治>의 두가지 書籍을 考察하여 알아보자. 本書에서는 中風이 '突然口眼喎斜 言語不利 半身不遂 甚至昏仆 不省人事'의 症狀을 特徵으로 하는 하나의 疾病이라 하고 絕對多數가 肝風內動에 基因하는 內風에 屬한다고 하였다. 中風의 病因에 있어서, 唐宋以前에는 正氣虛卽邪氣乘虛而入의 外因論으로 認識하였는데, 唐宋以後에는 劉河間의 "主火說" 李東垣의 "主氣說" 朱丹溪의 "主濕痰說"과 이를 받아들인 張景岳의 "非風說"등 內因論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후 葉天士는 中風發生의 機轉을 한층 發展시켜 本病이 明確히 "內風"에 屬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唐宋以前과 以後의 中風의 病因病理에 對한 認識이 顯著하게 다르므로 王安道가 劉, 李, 朱三家의 內因性中風을 類中風이라 하고, 三家以前의 風邪入中하여 發한 中風을 眞中風이라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唐宋以前에는 歷史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本病에 對한 認識이 片面的이었고, 唐宋以後에는 本病에 對한 認識이 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 때에 나타난 觀點이 客觀實際的인 見解라고 하였다.

또 中風의 發病機轉을 세가지 方面으로 나

누었는데, 첫째로 七情所傷이나 自然的인 衰退로 因하여 人體의 陰陽失調로 肝腎陰이 不足하게 되고, 心火와 肝陽이 偏亢하여 肝風暴張을 形成하여 發病한다. 둘째로 飲食不調와 勞倦內傷으로 脾失健運하여 生濕하고 濕生痰 痰生熱하여 痰熱과 肝風이 上逆하여 蒙閉清竅하여 發病한다. 셋째로 少數의 內虛風邪侵入하거나 素體陰虛陽亢하거나 痰濕素盛한데 外邪가 內邪를 引動하여 發한다. 이러한 見解는 劉河間의 "主火說" 李東垣의 "主氣說" 朱丹溪의 "主濕痰說"을 綜合하고 兼하여 外感中風說을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4) <中風證治><sup>11)</sup>

病因病理

(1) 病因病理分類

① 正虛邪中. 正氣不足 脈絡空虛 風邪乘虛入中經絡 氣血痺阻 肌肉筋脈失於濡養; 或形盛氣衰 痰濕素盛 外風引動痰濕 閉阻經絡 而致喎僻不遂. 如<諸病源候論.風偏枯候>曰:"偏枯者 由血氣偏虛 卽腠理開 受於風濕 風濕客於半身 在分腠之間 使血氣凝滯 不能潤養 久不瘥 眞氣去 邪氣獨留 卽成偏枯".

② 積損正衰. 年老體衰 肝腎陰虛 肝陽偏亢; 或思慮煩勞過度 氣血虧損 眞氣耗散 復因將息失宜 致使陰虧於下 肝陽鳴張 陽化風動 氣血上逆 上蒙元神 突發本病. <臨證指南醫案.中風>曰:"肝血腎液內枯 陽擾風旋乘竅".

③ 脾虛濕生. 嗜酒肥甘 飢飽失宜 或勞倦內傷 損傷脾胃 脾失健運 聚濕生痰 痰鬱化熱 阻滯經絡 蒙蔽清竅; 或肝陽素旺 橫逆犯脾 脾運失司 內生痰濁; 或肝火內熾 煉液成痰 以致肝風挾雜 痰火 橫穿經絡 蒙蔽清竅 而致突然昏仆 喎僻不遂.<臨證指南醫案.中風.華岫云按>:"風木過動 中土受戕 不能御其所勝.....飲食變痰.....或風陽上僭 痰火阻竅 神識不清".

④ 情志所傷. 五志過極 心火暴盛; 或暴怒傷肝 肝陽暴動 引動心火 風火相煽 氣熱鬱逆 氣血并走於上 心神昏冒而卒倒無知 發爲本病.<素

問玄機原病式.火類>: “多因喜怒思悲恐之五志有所過極而卒中者 由五志過極 皆爲熱甚故也”.

⑤ 氣滯血瘀. 暴怒血鬱於上 或因氣滯血行不暢 或因氣虛運血無力 或因感寒收引凝滯 或因熱灼陰傷 液耗血滯 而致瘀血阻腦 清竅不利 形成突然昏仆 喎僻不遂.

綜上所述 中風之發生病理雖較複雜 但歸納起來不外, 虛(陰虛, 氣虛), 火(肝火, 心火), 風(肝風, 外風), 痰(風痰, 濕痰), 氣(氣逆), 血(血瘀) 六端 其中又以肝腎陰虛爲其根本. 此六端在一定條件下 互相影響 相互作用而突然發病.

(2)病理

患者平素氣血虧虛 與心, 肝, 腎三臟陰陽失調加之憂思惱怒 或飲酒飽食 或房室勞累 或外邪侵襲等誘因 以致氣血運行受阻 肌膚筋脈失於濡養 形成喎僻不遂; 或陰虧於下 肝陽暴張 陽化風動 血隨氣逆 挾痰挾火 橫穿經隧 蒙蔽清竅 而形成上實下虛 陰陽互不維系的危急證候.

(3)病位

中風的病位在頭(顛疾)

(考察)

本書에서는 中風의 原因을 대략 正虛邪中, 積損政衰, 脾虛濕生, 情志所傷, 氣滯血瘀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綜合하면 虛, 火, 風, 痰, 氣逆, 血瘀 등의 六端으로 分類하고 이 여섯가지 條件이 相互 影響하여 突然 發病하는 것이 라 하였다. 이의 病理를 살펴보면, 患者가 平素에 氣血이 虧虛하고 心, 肝, 腎三臟의 陰陽이 失調한데에 情志失調나 飲酒飽食, 或은 房勞過度, 或은 外邪侵襲 등의 條件이 더하여진 誘因에 依하여 氣血運行的 障碼로 肌膚, 筋脈이 濡養을 받지 못하므로 喎僻不遂하고, 또 陰이 下虧하여 陽이 挾痰, 挾火하여 上으로 動하여 經絡과 清竅를 蒙閉하여 上實下虛를 形成하며 陰陽離缺한 危急한 症狀이 된다고하였다. 이를 보건데 中風은 하나의 特定한 原因보다는 複合的인 要因에 의해서 發한다고 생각된다.

5) <肝系內科學><sup>2)</sup>

肝風內動

肝風內動은 半身不遂 震顛 四肢麻木 口眼喎斜 抽搐 等 筋運動障碼症狀와 함께 頭痛 眩暈을 發하며 內外風으로 나눌때 內風에 屬한다. 內風에 對하여서는 葉天士가 精血衰耗하여 水不涵木 木少滋榮하는 故로 肝陽이 偏亢하며, 內風時起한다고 하였으며, 各各 原因에 따라서 나타나는 症狀이 아래와 같다.

1, 下衰,

腎液不營, 營液內耗, 肝陰不足, 水虧, 營虛, 氣虛於上: 眩暈跌仆, 左肢偏痿, 舌絡不和, 呼吸不爽, 痰火上蒙, 目泛舌強, 脊背不舒, 溲淋便澀, 心悸少寐, 掉擾.

2, 操持煩勞, 怒動肝風, 肝膽內風自動, 內風動, 陽升化風, 肝風突起, 驚恐惱怒動肝, 思慮煩勞, 肝風內沸, 情懷鬱勃: 頭眩耳鳴, 目珠痛, 筋脈脇樞, 喉痺, 心悸蕩漾, 頭重鳴, 神呆不語, 牙關緊閉, 環口牽動, 咽喉如有物, 舌暗, 筋惕肌麻, 頭暈, 喉舌乾澀.

3, 內風不熄, 相火肝風上竄, 肝膽風火上鬱: 夜不得寐, 胸臍間時閃火藥欲動, 目跳, 頭暈頭面清空之筋攣不和.

肝風이란 用語는 外感風과 區別하기 위하여 指稱되어졌으며, 이것의 病變過程은 內動하게 되는 것이다. 肝風內動이란 用語는 實際로 風氣內動과 같은 의미로 使用되고 있다.

(1)肝陽化風

病因: 肝陰不足 肝陽上亢 陽動化風

症狀: 頭痛 眩暈 肢體麻木 震顛 言語不利 步行不穩 舌質紅 脈弦 甚即舌強不語 口眼喎斜 卒然昏倒 半身不遂

治法: 平肝熄風

治方: 鎮肝熄風湯 天麻鉤藤飲

(2)熱極生風

病因: 高熱肝風動

症狀: 高熱 煩渴 躁擾不安 譫語 抽搐 項強 兩目上翻 四肢拘急 甚即角弓反張 神志昏迷 舌歪 舌質紅黃 脈弦數

治法: 清熱熄風涼肝

治方: 羚羊鉤藤湯

(3) 血虛生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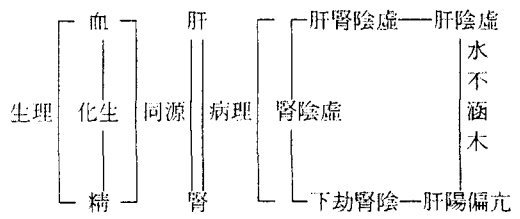
病因: 因失血日久病 肝血虧虛

症狀: 眩暈 面色萎黃 視物模糊 肢體麻木 或震顫 肌肉掣動 筋脈拘急 舌淡 脈弦數

治法: 養血熄風

治方: 四物湯 補肝湯 加 鈞鉤藤 白蠶蠶 羚羊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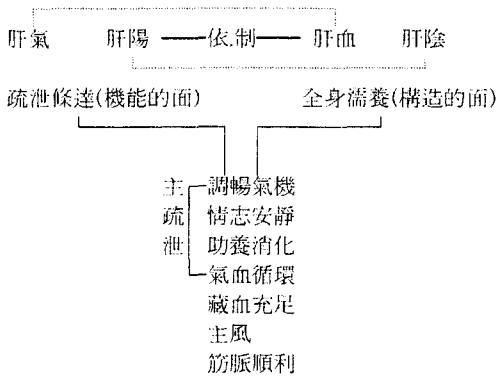
3) 肝과 腎의 關係<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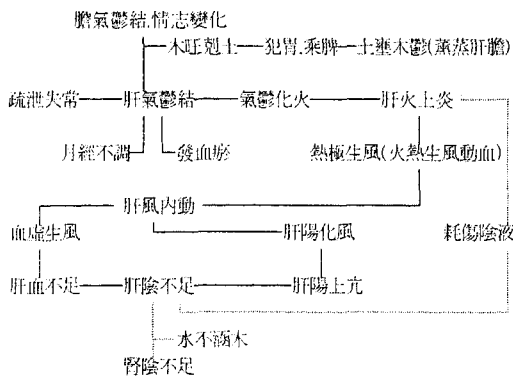
III. 總括 및 考察

5. 內風의 理解를 爲한 基本概念

1) 肝의 生理的 機能<sup>2)</sup>



2) 肝의 病理轉變過程<sup>2)</sup>



中風의 여러 原因說중의 하나인 內風說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歷史的인 측면과 病理的인 측면의 두가지로 考察해보자. 먼저 歷史的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內經<sup>6,7)</sup>에서는 外滅之風邪로서의 中風을 말하였고 後代에 말한 中風症狀에 對하여서는 “諸暴掉眩 皆屬於肝”, “諸暴剛直 皆屬於風”, “大怒即形氣絕理血鬱於上 使人薄厥” 등의 구절과 “氣逆”, “血之與氣 并走於上”, “屬風屬火” 등의 말로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後世의 醫家들이 中風의 症狀 및 用語의 概念에 대하여 正確한 認識이 不足하였던 것처럼 생각된다. 以後 張仲景<sup>19)</sup>이 外邪의 轉變概念을 風中於經絡, 中腑, 中臟 등으로 설명한 바 後代의 醫家들이 이의 影響을 받고 아울러 內經에 대한 認識의 不足과 時代的인 制約때문에 中風을 外感之風邪로 把握하여 治療에도 發散之劑를 多用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中風觀은 金元代의 內因說이 나오기 以前까지 繼續되었는데, 宋代의 書籍을 살펴보면 <聖濟總錄><sup>13)</sup>에서 中風의 原因이 人體의 臟腑가 大虛하고 氣血이 衰弱할때 風邪가 侵入하여 本病을 發한다고 하여 基本的으로 外因說을 따랐지만, 中風症狀中의 하나인 攤緩을 설명함에 있어서 氣血內耗 肝腎虛弱하여 陰陽偏廢而得之하고 或은 眞氣內動 營衛失調로 因하여 發한다고 하였으며, <濟生方><sup>12)</sup>에서는 內因七情而得之者라는 句節과 肝風을 비롯한 症狀을 內經의 外邪之風이 아니라 後

代에 말한 中風의 症狀을 包括하는 而으로 설명한 것을 볼 때, 唐宋代에서 이미 體系化 되지는 않았지만 中風의 內因에 對한 認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金元代에 이르러 劉河間의 '主火說'<sup>14)</sup> 李東垣의 '主氣說'<sup>15)</sup> 朱丹溪의 '主濕痰說'<sup>21)</sup>이 나타나면서 中風의 原因이 外來之風이 아니라 內生之風이라는 認識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理論은 前代의 中風理論과 顯著히 다르므로 當時의 醫家들이 이를 區分하여 眞中風과 類中風으로 나누려는 試圖<sup>15)</sup>를 하게 되었다. 한편 明代에는 張景岳<sup>18)</sup>이 三家의 原因說을 받아들이면서 部分的으로 批判을 加하여, 中風을 非風이라 하였고 前代의 三人이 中風의 內因說을 말하면서 治方에 散風之藥과 治痰之藥을 使用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治法에 先大補元氣 後補眞陰의 方法을 用하라 하였다. 이러한 影響으로 이후에는 中風의 原因에 있어서 內因이 더욱 重要하게 認識되었다.

清代에 이르러 葉天士<sup>10)</sup>는 既存의 中風 原因說과 다른 內風說을 主張하였다. 그는 眞中風을 말함에 비록 外部의 風邪가 侵入한 것이지만 역시 內虛에 말미암아 邪氣가 虛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 하여 內因의 重要性을 強調하였고, 劉河間의 '主火說', 李東垣의 '主氣說', 朱丹溪의 '主濕痰說'이 類中之症을 明確히 밝혔지만, 當時의 醫家들이 眞中風과 類中風을 區分하지 못하여 類中之說에 每양 祛風割痰之劑를 使用하니 이는 虛證을 實治하는 잘못이라 하였다. 內風의 病理的 機轉은 葉天士 以前의 醫家들의 中風論에서도 나타나지만 體系의 이지 못하며 但只 中風內因의 一部分으로 表現되고 있다. 이러한 面을 살펴볼때, 內風說은 前代의 眞中風, 類中風의 說을 받아들인 가운데 內經과 五臟의 相生相剋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中風의 內因說을 더욱 明確히 하고자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以後 諸醫家들은 中風을 論할때 內因의 한가지 面으로서 葉天士의 理論을 받아들였는데, 林珮琴은 <類證治裁><sup>17)</sup>에

서 類中風을 內風으로 설명하였으며, 眞中風을 설명함에도 內因의 重要性을 強調하였고, 張錫純은 <醫學衷中參西錄><sup>20)</sup>에서 西醫理論을 導入하여 內生風을 西醫의 腦充血이라 하고 그 病理機轉을 肝風內動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清代以後에는 中風 內因의 한가지 方面으로 葉天士의 內風說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在에는 中風의 原因說을 論함에, 葉天士의 "內風說"을 包含해서 劉河間의 '主火說'<sup>14)</sup> 李東垣의 '主氣說'<sup>15)</sup> 朱丹溪의 '主濕痰說'<sup>21)</sup>과 外邪之風說로 설명하고 있으며, 內風說을 더욱 細分하여 '肝陽化風', '血虛生風', '熱極生風', '陰虛風動' 등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8)</sup>

"內風"의 病理的인 側面을 살펴보면, 葉天士<sup>10)</sup>는 "內風乃身中陽氣之變動"이라 하였는데 身中의 陽氣라는 것은 陰血과 相對的인 概念으로서, 陰陽은 相互依存, 對立하면서 不斷히 相互作用을 하는데, 陰陽이 人體에서 作用을 나타낼 때에는 氣血의 作用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그 中 陽은 氣와 結合하여 陽氣<sup>2)</sup>라는 概念으로 說明되며 이는 陰血의 物質的인 面과 相對되는 것으로 陽氣의 作用은 旺盛한 機能活動을 意味하며 主로 動, 興奮, 溫熱, 前進, 上昇, 明 등의 現狀으로 나타난다. 또 <素問陰陽應象大論><sup>6)</sup>의 "陰在內陽之守也 陽在外陰之使也...暴怒傷陰 暴喜傷陽...陰勝卽陽病 陽勝卽陰病" 등의 句節에서 情志失調로 因한 怒氣가 陰을 傷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陽의 偏盛을 招來하고, 또한 陰虛生內熱, 陽盛生外熱, 陰損及陽의 概念에서 過勞나 年老로 因해 精血이 損傷되면 陰이 虛하여 陽을 制御하지 못하므로 陽氣가 過亢하게 된다. 따라서 身中陽氣之變動이라는 것은 人體機能活動의 過亢으로 興奮, 熱誠, 妄動, 上昇 등의 過度한 病理的인 狀態임을 알 수 있다.

內風의 機轉은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인데 肝은 東方風木之氣에 依해서 生한 것이므로 其性主動하며

風氣通於肝한다. 肝의 生理的인 作用은 風木의 昇發과 透泄이고 五志중의 怒를 主하며 藏血 作用을 한다. 또한 肝主筋하므로 人體의 모든 外形的인 움직임을 主管한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肝의 作用은 肝에 寄하는 相火의 作用으로 說明되기도 하는데<sup>16,17)</sup>, 火는 陰中之陽으로 上昇을 主管하며 肝은 陰中之陽臟으로 肝主昇하는 性質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肝陽은 肝의 作用自體와 그 作用을 促進하는 陽火之性을 말함이고, 肝陰은 肝陽을 制御하는 同時에 肝陽의 作用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資源으로 肝血로 나타나며 이는 水生木의 機轉으로 因해 腎精에 依해 不斷히 滋養됨을 알 수 있다. 葉天士는 이를 相火로 說明하면서 情志不舒하여 鬱을 生하고, 言語로 因해 怒를 生하고, 謀慮 過度하여 竭하게 되면 罷極之本인 肝이 火를 生하여 攻衝激烈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肝風, 肝氣, 肝火를 論함에 古人이 비록 이 세가지를 區分하여 나누었지만 實際로는 하나의 根源에서 나온다고 하였다<sup>10)</sup>. 따라서 위에서 敍述한 여러가지 原因에 依하여 人體內의 陰이 損傷을 입어 精血이 不足하게 되면 肝木의 生理的 作用이 正常的인 滋養이나 制御를 받지 못하게 되어 肝陰의 偏衰와 肝陽의 偏盛을 誘發하게 되며 이에 따라 內風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精血은 人體를 構成하는 基本的인 營養物質로서<sup>1)</sup>, 精은 先天之精과 後天之精으로 區分되며 前者는 父母로부터 받은 것이며, 後者는 水穀之精으로 모두 腎에 貯藏되며, 血은 水穀之精微가 脾胃에 依해 化生되어 生하는 것으로서 肝에 貯藏되는데, 精과 血은 相互滋生 相互助張의 作用을 通하여 하나의 營養物質로 되고 이는 肝血과 腎精의 相互依存的인 側面으로 나타난다.

陽明脈絡은 本臟腑인 胃를 意味하기도 하고 承泣에서 勳兌에 이르는 經脈을 意味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胃는 水穀之海이며 또 五臟六腑之海이므로 水穀은 모두 胃에 入하며 五臟六

腑는 모두 氣를 胃에서 받는다<sup>7)</sup>. 胃는 脾와 함께 中焦로서 後天之本이 되며, 水穀의 精氣를 받아 血을 化生하여 五臟六腑에 注하는 役割을 하므로 胃氣가 虛하면 必히 血不足하게 되고 五臟六腑의 氣가 虛하여 生命이 危殆롭게 되는 것이다. 또한 血의 不足으로 偏亢된 肝陽이 足陽明胃經脈의 虛를 乘하여 쉽게 巔頂에 到達하여 諸病症을 發顯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內風의 症狀은 口喎, 舌強言蹇, 舌瘖不言, 多言似少相續, 四肢或偏身麻木, 偏枯, 偏辨, 肢萎, 神憊欲寐, 心悸, 頭暈目眩, 跌仆, 耳鳴, 呵欠, 二便不通, 甚即昏厥, 神昏不省 등으로 表現되는데 이는 一般的인 中風의 症狀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肝風과 中風을 區分하여 說明하였는데, 肝風은 中風이 發하기 前의 段階로서 肝風이 內動하면 비로소 이를 內風이라 하여 中風 發病의 先行要因으로 把握하였다. 따라서 肝風의 症狀은 內風으로 因한 中風과 類似하지만 비교적 輕微하고 可易의임을 알 수 있다.

內風의 治法에 있어서 寒涼한 風藥으로 泄氣降痰하거나 發散攻風하면 眞氣를 다시 損하게 되므로 이를 크게 忌한다 하여 醫家들이 中風之症에 함부로 風藥을 使用하는 것을 警誡하였으며,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을 通治法으로 삼고 具體的인 病理와 症狀에 따라서 辨證施治하라 하였으며, 특히 五臟絕症이 나타나서 陰陽이 不交하는 純虛症에는 急히 蔘附大劑로서 回陽하고 陰藥으로 佐하여 危險을 防止하라 하였으며, 만약 風陽이 痰火를 挾하여서 氣機를 壅塞한즉 榮衛脈絡의 疏通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危急하게 되므로 急히 開關하고 이어서 益氣養血하며 아울러 消痰清火之劑로 佐하라 하였다. 이는 中風을 治療함에 있어서 한가지 理論에 얽매이지 않고 多樣한 治法을 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을 綜合하면 內風이란 前代의 中風 內因說을 받아들여 이를 더욱 明確히 하는 過程에서 나온 것으로, 그 病理的인 側面은 人體의



陽氣가 陰血의 抑制를 받지 못하여 過亢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情志失調나 勞倦, 年老 등의 諸般要因으로 因하여 精血이 損傷되고, 이어서 腎陰의 不足을 惹起하며 腎陰이 肝陰을 濡養하지 못하여 肝陰의 不足을 招來하므로 肝陽이 肝陰의 滋養과 制御를 받지 못하고 妄動하여 中風을 發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을 通治法으로 삼고 具體的인 病理와 症狀에 따라 隨症治之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 IV. 結 論

葉天士의 內風說에 대하여 <臨證指南醫案>을 비롯한 여러 文獻을 살펴본 바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葉天士는 前代의 中風原因說과는 다른 “內風”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主張하였는데, 이는 現在까지 前代의 ‘外因說’, ‘主火說’, ‘主氣說’, ‘主濕痰說’, ‘瘀血說’ 등과 함께 中風의 原因說의 하나로 認識되고 있다.

2. 葉天士는 “內風乃身中陽氣之變動”이라 하였는데, 이는 人體內의 陰血이 陽氣를 制御하지 못하여 陽氣가 妄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葉天士는 肝風과 內風을 區分하였는데, 肝風은 肝陰의 不足으로 肝陽이 過亢하게 되어 誘發된 正常的인 氣機의 失調狀態이며, 內風은 肝陰이 더욱 甚해져서 體內에서 妄動하여 中風의 諸症狀을 發한 狀態라 할 수 있다.

4. 內風을 誘發하는 要因은 血虛, 暴怒, 過勞, 年老, 時令不調, 熱盛등에 의한 陰血의 耗傷이라 할 수 있다.

5. 內風의 病理的 機轉은 “精血衰耗 水不涵

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인데 이는 ‘4’의 原因으로 肝血과 腎精이 不足하여 肝陽이 滋養과 制御를 받지 못함으로 因해 肝의 昇發, 透泄機能이 失調되어 肝氣의 過亢이 惹起되며 이에 따라 中風의 症狀이 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內風의 症狀은 中風의 症狀을 包括한다고 할 수 있다.

7. 內風의 治療時에는 寒涼한 風藥을 함부로 使用하는 것을 大忌하며, ‘滋液熄風 濡養經絡 補陰潛陽’을 通治法으로 삼고, 具體的인 病理 機轉과 症狀에 따라 隨症治之함이 適切하다고 할 수 있다.

8. 內風說은 中風 內因說 中の 하나이므로, 이로써 모든 中風을 說明하는데는 限界가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中風의 治療時에는 內風說을 비롯하여 火, 氣虛, 濕痰, 瘀血 등의 諸般 要因을 區分하여 辨證施治함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1. 具本弘外 : 東醫心系內科學, 서울, 書苑堂, 1987, p229, 230
2. 金秉雲 :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p24-31, pp56-59
3. 金完熙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p313-315
4. 金完熙, 梁基相, 金吉萱, 洪茂昌 : 韓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p97-115, pp125-135, pp184-200
5.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pp123-127, 199-203
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11, 16, 23-25.

p34,36,39,72,157,231,236,293

7.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1，p68,210,260,p270,286.
8. 上海中醫學院編：中醫內科學，上海，商務印書館，1985，pp168-169
9. 徐靈胎：徐靈胎醫書全集，北京，人民衛生出版公司，1988，p170
10. 葉天士：臨證指南醫案，臺北，新文豐出版公司，民國69年，pp1-31，p410
11. 沈全魚外：中風證治，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8，pp6-8
12. 嚴用和：濟生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0，pp13-18
13. 吳錫璜：聖濟總錄，臺北，新文豐出版公司，1978，pp6-15
14. 劉完素：傷寒六書，서울，成輔社，1976 pp281-283
15. 李杲外：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pp634-637
16. 李仲梓：醫宗必讀，臺北，文光圖書公司，pp14-15
17. 林珮琴：類證治裁，서울，成輔社，1980，pp4-14，pp184-185
18. 張介賓：景岳全書，서울，大星文化社，1988，pp187-226
19. 張機：金匱要略，서울，翰成社，1975，pp28-35
20.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上海，商務印書館，1975，pp107-117,p517
21. 朱震亨：丹溪心法，서울，杏林出版社，1965，pp278-280